

4급 자리도 코드 인사?

1년 공식 5·18 묘지 관리소장 '내정설' 논란

5월단체, 청와대에 항의 서한 보내기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째 공식 상태인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4급 계약직) 공모와 관련 최근 '특정인 내정설'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후임 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5월 광주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월 관련단체들은 "다른 곳도 아니고 5·18묘지 관리소장까지 '코드 인사'로 앉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관련단체는 최근 ▲정치적 중립 ▲민주묘지 관리(열린 공간 표방)능력 ▲5월 관련단체·시민단체·광주시민 연대 능력을 갖춘 자를 5·18묘지 소장으로 인선해 달라 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국가보훈처 등에 보냈다. 또 5월 관련단체는 3일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보내 보낼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0월 전임 관

리소장인 박경순씨가 지병으로 타계한 이후 지난 1월 관리소장 1차 공모 모집에 이어 5월 23일, 7월 11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모 절차를 밟았다. 보훈처는 3차 공모까지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차 재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았다.

4차 공모에는 현재 8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면접(5일)도 보기 전에 특정인이 청와대로부터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는 등 향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당시 5월 관련단체 명의로 지지 성명을 냈다가 이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5월 관련단체는 "코드 인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5월 관련단체는 지난 4월 말에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후임 소장은 5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뽑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관련단체는 2·3차 공모 때 단체의 의견을 모아 단일 후보자를 선정해 공모에 응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했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5월 관련단체 등에서는 관리소장에 특정인이 사전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라며 "관리소장 자리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정인 내정설'의 당사자인 W씨는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은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다"며 "현 정부 인사와 사석에서 만났는데, '5·18묘지 관리소장직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4차 공모에 신청하기로 결정했고 나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적임자가 없어서 3차공모까지 못 뽑았을 뿐이다. 사전 내정설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종합병원서 치료받던 환자 돌연 사망

주사 맞고 쇼크...유족들, 병원 과실 주장

광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치료 도중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남구 K 병원에서 간 혈종과 갈비뼈 골절로 치료를 받던 Y(54)씨가 지난달 25일 항생제 주사를 맞은 후 쇼크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상가건물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간과 갈비뼈를 다쳐 이날 K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Y씨는 지난달 20일께 추락으로 인한 외상과 별도로 쓰쓰가무시병이 발견돼 치료를 병행해왔다.

이에 대해 Y씨 유족들은 병원측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족들은 Y씨가 지난달 13일 간 혈종에 따른 항생제 주사를 맞고 첫번째로 쇼크 증세를 보인 후 주사를 중단했다가 25일 병원측이 또 다시 같은 주사를 놓으려고 해 반대했으나 강행하는 바람에 Y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사전 당일 차트에 항생제 주사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지

주의하라고 적혀 있었고, 쓰쓰가무시병이 있어 다른 처방을 내려야 했지만 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처방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담당 의사와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Y씨의 시신을 부검했으며, 정확한 사인은 1개월여 후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K병원측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니다. 항생제 주사를 잘못 놔서 숨진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으로서는 부검결과를 지켜볼 뿐이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643) 김중두



다 중의 건축 상담업체 KCC

(주) 금옥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업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5·18 왜곡' 이종윤 목사 소속 교회 장로들 이번주 5·18 묘지 참배

이 목사 참배는 결정안돼

사단법인 '5월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관련단체는 예매 도중 5·18 민주묘지를 왜곡한 이종윤 목사가 소속된 서울교회 장로들이 이번 주중 5·18민주묘지를 방문, 공식참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5월 관련단체 소속 회원 200여명은 이날 서울시 개포동 서울교회 앞에서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상경 항의집회를 가졌다. 5월 단체 회원들은 "이 목사가 '광주 민주항쟁은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학살과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5월 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죄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5월 관련단체는 지난달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5월단체 관계자는 "이 교회 장로 등이 오는 7일 민주묘지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로들이 이 목사를 설득해서라도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이 목사 참배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관련단체는 또 최근 5·18 민주항쟁 자료(史料)를 인용해 학생들을 가르친 경남지역 대안학교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의의 서한문을 보낸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5월 유공자유족회 관계자는 "공소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검사가 '광주시민권 쉼터문과 오월의 노래 등을 공소장에서 빼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지만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탓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보성 실종 남자 숨진 채로 발견

보성 앞바다에 놀러온 뒤 4일째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남녀 가운데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께 고흥군 도덕면 대곡리 용동방파제 앞 200m 해상에서 박모(27)씨의 사체를 조업중이던 어민이 발견했다. 해경은 박씨의 시신을 인양, 보성경찰서로 인계했다.

박씨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실종 장소로 추정되는 보성군 회천면 민박집과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박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박씨와 대학동기인 박모(여·27)씨 등 2명은 지난달 28일 밤 보성군 회천면 선착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주민들에게 목격된 뒤 연락이 끊겼다.

/보성=선성근기자 sun@



학생독립운동 재연 퍼레이드

'제79회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학생운동 재연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과 광주홍사단 회원 등 중·고생 300여명은 이날 오후 금남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갖은 뒤 광주일고까지 행진하며 '두발 자율화'와 '입시위주 교육 철폐' 등을 주장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청소년 2명 중 1명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몰라요"

광주지역 청소년 2명 중 1명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민족문체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 행사보다는 축제와 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과 전국청소년학생연합 등의 단체가 '제79회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리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 1천260명 중 49%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다'는 51%에 불과했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행사가 열린다면 어떤 행사는 원하느냐'라는 항목에는 '청소년 축제, 콘서트',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와 즐길 거리', '기념일을 휴교일로 제정하기 위한 캠페인성 행사',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사회에 알리는 행사'와 '과거 학생들처럼 애국심을 갖는 활동' 등은 5번째와 7번째를 기록해 민족 및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을 반영했다.

정태연 '희망' 간사는 "조사결과만으로 '학생들이 역사의식이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오래된 현대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기념식을 갖고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현주기자 ahj@

"쓰레기 흘렸다" 이웃집 방문 부수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를 흘리고 다니는 이유로 이웃 집 유리창을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2일 이웃 집 발코니 유리창을 부순 A(51·광주시 북구)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각화동 모 아파트 1층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옆 집에 거주하는 B(36)씨가 쓰레기를 옮기면서 내용물 일부를 흘린 것에 격분해 화단에 있던 나무막대로 B씨의 아파트 발코니 유리창 2장을 부수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사 온 지 1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꾸 음식물 쓰레기가 복도에 흘러져 있는 것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이웃 주민이 몸이 불편해 쓰레기 봉투를 바다에 끌다 내용물이 흘린 것인지 몰랐다"면서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마실수록 기뻐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수소 물은 뛰어난 노화방지 효과가 99% 활성 산소를 없애고

세계 최고수준의 미네랄 함유의 수소 물

수소수 5대 특징

1. 활성산소를 없애고	2. 면역기능을 강화
3. 노화를 방지	4. 피부미용
5. 운동후 피로 회복	6. 소화기능 향상

수소수 5대 효능

1. 노화방지	2. 피부미용
3. 운동후 피로 회복	4. 소화기능 향상
5. 면역기능 강화	6. 활성산소를 없애고

수소수 5대 장점

1. 활성산소를 없애고	2. 면역기능을 강화
3. 노화를 방지	4. 피부미용
5. 운동후 피로 회복	6. 소화기능 향상

수소수 5대 효능

1. 노화방지	2. 피부미용
3. 운동후 피로 회복	4. 소화기능 향상
5. 면역기능 강화	6. 활성산소를 없애고

수소수 5대 장점

1. 활성산소를 없애고	2. 면역기능을 강화
3. 노화를 방지	4. 피부미용
5. 운동후 피로 회복	6. 소화기능 향상

수소수 5대 효능

1. 노화방지	2. 피부미용
3. 운동후 피로 회복	4. 소화기능 향상
5. 면역기능 강화	6. 활성산소를 없애고

코스몰 패션타운 탄생!

신차구축상업지구 실상

코스몰 패션타운

4F	랜드마크점
3F	이벤트극장
2F	영화관
1F	편스토랑

편스토랑의 ☎ 062)372-2114